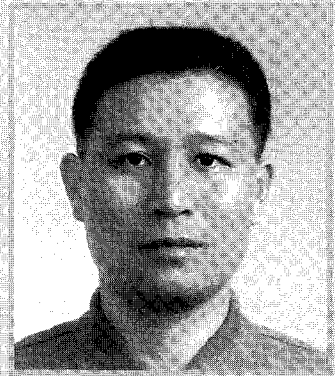


## 종계 사양관리, 고급인력이 생산성을 좌우한다



인 경 섭 한국원종 부장

**종**계업에 종사하는 사람만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직업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농민적 근면성만 있으면 종계 사육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현재는 농민적 근면성만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종계 성적이 잘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종계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농민적 근면성, 사양관리 기술, 질병관리, 차단방

역, 사육환경, 기계기구 등 다 방면의 종계 사양관리 기술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력투자에 소홀히 하면서 사람 탓만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고급인력 투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업계가 부담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미국 월가의 최고 투자자는 10년 앞을 내다본다고 한다. 10년 앞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1) 유행(Fad) : 짧게는 몇 일에서 길게는 1

년 이내의 기간에 일어나는 변화

2) 트렌드(Trend) : 유행보다 긴 2~3년 비 교적 큰 줄기의 변화

3) 메가트렌드(Megatrend) : 최소한 7년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근본적인 큰 줄기의 변화, 우리는 짧은 기간의 변화에(유행) 집착하여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농장의 고급 인원을 감축시키고 종계를 환우해서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행(Fad)에 집착하다 보면 농장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을(질병, 생산성 저하)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농장을 많이 보아왔다.

우리는 메가트렌드(Megatrend) (최소한 7년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근본적인 큰 줄기의 변화(닭고기 수입에 따른 시장변화, 살모넬라 컨트롤 방법, 종계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의 변화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토론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외국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종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위 및 지식의 우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개별농가 우위로서는 외국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고 조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한다.

현재 도계장에서 HACCP를 적용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범위가 확대되어 농

장 HACCP가 적용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양계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산 닭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잠식해 나갈 것이다.

본고는 2005년 1년 동안 종계사양관리의 중요 키포인트를 파트별로 구분,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연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할 예정이다. 종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월 육용종계의 생리적 발달
- 3월 병아리 입추준비
- 4월 육추기 관리 (0~7일)
- 5월 육성기 관리 (2~4주)
- 6월 육성기 관리 (5~18주)
- 7월 중추이동 전후 사양관리(18~22주)
- 8월 수탉 선발 및 합사 비율 (18~22주)
- 9월 육성기 점등 및 산란기 첫 점등지극 시점
- 10월 산란 5%~산란피크까지 사양관리
- 11월 산란기 중요 사양관리
- 12월 40주 이후 수탉 스파이킹 방법

중국 우왕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세숫대야에 새겨 매일매일 변화의 각오를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양계**

